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K-교육 선도

전남교육청·공공기관 등 31곳 참여
교육 발전·상생협력 기반 조성 선언
향후 10년 내 학생 3만명 시대 실현
인프라 조성·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난달 29일 '2025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 선포식에 참석한 시민과 관계자들이 단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혁신하고 미래 인재 양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25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 선포식에 참여해 전라도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 이전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역 교육 발전과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질 것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주시와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나주교육지원청이 주관했으며 'K-edu를 선도하는 나주교육, 지금 시작!'을 주제로 진행됐다.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내 학생 3만명 시대 실현을 목표로 2034년까지 장기 계획과 3단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5~2027년 '기반조성기'에는 교육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8~2032년 '교육성장기'에는 학교 신설 및 이설, 나주-광주 공동학군제 도입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며 2033~2034년 '빅뱅안정기'에는 나주교육타운 정착과 광주-나주 공동생활권 확대를 추진한다.

또 '지속가능한 미래 공생교육'이라는 철학 아래 나주형 교육특구 운영, 한국에너지공과대 부설 에너지영재교육원 신설, 나주 슈퍼노바 인재학교 운영(2025년 매성중 시범학교), 지역 협력형 돌봄센터 확충 등 구체적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 개관 예정인 어린이도서관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다함께돌봄센터를 비롯해 2029년 매성초 돌봄센터 신설 등 교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에너지영재교육원 운영을 지원해 미래 에너지인재 양성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운영, 기숙형 중고등학교 육성, 학생 통학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국내외 미래도전 프로젝트 지원으로 진로 탐색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나주시교육진흥재단과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나주형 교육선순환 모델'을 완성해 지역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앞으로 10년간 나주가 교육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라며 "교육청과 공공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나주형 교육혁신을 만들어가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 국화동호회 국향대전 판매 수익금 기부

24일~11월 9일 분재 판매행사

함평군 국화동호회가 가을철 국향대전을 맞아 함평 국화의 매력을 전국에 선보인다.

함평군은 함평 국화동호회가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간 함평엑스포공원 중앙광장에서 국화분재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화동호회는 국향대전을 찾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함평 국화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판매 행사를 시작했다. 판매장에서는 회원 115명이 직접 재배해 정성껏 준비한 국화분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함평군은 '나비노을' 등 23개의 신품종 국화를 자체 재배하고 있으며, 분재국 신품종도 함께 선보여 국화 문화와 종자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함평 국향대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독창적인 품종을 전시·판매해 차별성을 더한다.

판매 수익금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전액 기부할 예정으로, 국화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동시에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국화동호회 회원의 열정과 땀이 깃든 국화분재 판매 행사를 올해도 진행한다"라며 "판매 수익금을 지역 인재 양성에 사용키로 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군보건소가 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군보건소, 생물테러 초동 대응 훈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점검

강진군이 최근 강진군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을 위해 보건소가 주관하고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5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생물테러 대응 이론 교육 ▲개인보호복(레벨 A, C) 착·탈의 실습 ▲다중탐지키트 사용법 ▲현장활동 계획 수립 및 위험구역 설정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강의는 전남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 김태문 소방위가 맡아, 현장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했다.

강진군보건소는 앞으로도 감염병 관리와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생물테러 상황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장성군 '구직자-기업 가교 역할' 기업 탐방 프로그램 호응

청년 구직자에 기업 소통 기회 제공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 탐방 프로그램에 구직자들이 지난달 25일 보해양조 장성공장을 찾았다.

장성군이 운영한 '기업 탐방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으며 지역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장성군은 구직자-기업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고 있다.

'기업 탐방 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기업 문화와 실제 근무 환경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장성군이 '전라남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기획·추진했다.

총 20명의 구직자가 지난달 25일 보해양조 장성공장과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 장성 서브허브를 방문해 기업 소개 및 탐방, 인사 담당자 특강, 질의응답 등의 순서에 참여했다.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장성군은 앞선 7월에도 목포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들과 함께 나노바이오연구센터와 에이치엘비팹, 참든건강과학을 탐방했다.

장성군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에서 '일자리 홍보부스'를 운영해 ▲인생네컷 ▲타로 취업 컨설팅 ▲퍼스널 컬러 취업 컨설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며 "현장 중심의 취업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역 인재의 정착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정신건강의 날 맞이 걷기 기부챌린지

담양군이 '세계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걷기 기부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나눔 실천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마음건강 고(GO)! 걷기 기부챌린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진행되며 전체 참여자들이 함께 7000만 보를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 시 관내 아동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부 물품이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가능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워크온(WalkOn)' 앱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전체 커뮤니티에서 '담양군'을 검색해 공식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